



원작 무게감 딛고 오늘날 의미 어떻게 살릴까

4·3오페라 '순이 삼촌'

갈라 콘서트로 첫 무대
아리아·합창 등 진혼곡
9월 제주아트센터 초연
10월엔 서울 무대 예정



지난 20일 4·3 오페라 '순이 삼촌' 갈라 콘서트 마지막 순서에서 출연진들이 인사를 하고 있다.

“인간의 머리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 70년이 지나도 아무도 대답 없는 일.” 이 섬에서 수만 명의 죽음을 불러온 제주4·3을 그린 오페라 '순이 삼촌' 갈라 콘서트는 테너 이정원의 아리아 '그날의 기억'으로 막이 열렸다. 약 1시간 30분 동안 이어진 콘서트는 “4·3의 비극은 여전히 진행중”이라고 노래했다. 희생자 명단이 무대 뒤로 길게 내걸린 가운데 “봄이 오면 꽃이 핀다 말하리라”('이름없는 이의 노래')는 마지막 순서의 합창까지 진혼곡처럼 들렸다.

지난 20일 오후 4시 제주아트센터. 제작진과 언론을 초청해 진행된 이날 무대는 9월 초연에 앞서 오페라의 주요 대목을 선보이는 자리였다. 오페라 서곡 '레드 아일랜드', 아리아인 '예나제나 죽은 마을'과 '살아 시난 다 살아진다' 등 10곡 가량을 공개했고 공연 장면은 동영상 채널

로 실시간 중계됐다.

이 작품은 1949년 1월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에서 발생한 학살을 담은 현기영의 중편소설 '순이 삼촌'을 원작으로 했다. 1978년 발표됐고 이듬해 단행본으로 묶인 소설은 4·3의 비극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한 4·3 문학의 '고전'이다.

갈라 콘서트로 드러난 오페라 '순이 삼촌'은 원작의 무게감에 눌린 듯 보였다. 소설처럼 1978년 북촌을 배경으로 가져온 오페라는 시종 제주 사람들의 수난을 노래했다. 프롤로그

아리아를 제외하곤 “30년 전”에 벌어진 일이라는 대사처럼 소설이 쓰여진 시대의 자장 안에 있었다. 그동안 문학, 미술, 연극, 영화 등으로 4·3을 다뤘었고 4·3진상규명운동의 과정에서 제주사람들의 주체성에 주목해왔다. 2020년 우리가 찾아야 할 또 다른 순이 삼촌이 있지 않을까. 사건 발발 70여 년이 흘러 오페라 창작으로 그 영역을 넓혔다면 “왜 지금 4·3을 무대에 올려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더해져야 할 것 같다.

총 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이 작

품은 제주아트센터와 제주4·3평화재단이 공동 제작에 나섰다. 강해명이 예술감독·연출·각본·연기 등 1인 4역을 담당하고 최정훈 제주도립 제주교향악단 작·편곡자가 작곡을 맡았다.

전체 출연자가 240여 명에 이르는 대형 오페라로 주요 배역은 '순이 삼촌' 역에 소프라노 강해명·강정아, '상수' 테너 이정원·이경호, '장교' 베이스 박경준·정용택·김승철, '할머니' 메조소프라노 신성희·추희명, '고모부' 바리톤 장성일·김광정, '큰아버지' 바리톤 이대범·양석진·오준희 등이다. 이탈리아 라스칼라 오페라극장 주역으로 활동해온 이정원, 안양대 교수 추희명도 있지만 강해명·강정아·김광정·김승철·오준희·이승호 등 제주 성악가를 주축으로 출연진을 꾸렸다. 제주아트센터의 기획 아래 정인혁이 지휘하는 제주교향악단의 연주와 제주합창단의 합창 등 제주예술단을 비롯 김수열(대본), 김정희(음악감독), 극단 가람(연기) 등 제주 이야기를 제주 예술가들이 풀어낸다.

제주 공연은 9월 25일 오후 7시30분, 9월 26일 오후 4시 제주아트센터로 잡혔다. 10월 14일 오후 8시엔 서울 세종문화회관 공연이 예정되어 있다. 전선희기자 sunny@halla.com



고남수의 '오름(Oreum) #11' (1999).

흑백 오름에 제주섬이 걸어온 풍경

고남수 사진 '오름 오르다'

9월 2일까지 포도갤러리

오름이 어제의 오름이 아니다. 개발 행위가 불러온 파괴, 무분별한 탐방으로 인한 훼손, 자연재해에 따른 수난 등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다. 제주사람들은 오름에서 태어나 오름에서 생을 마감한다고 했다. 사랑하면 할수록 상대를 아껴야 하는데, 오름의 얼굴엔 상처만 깊어간다. 이같은 현실에 오름의 본질을 새길 수 있는 전시가 있다. SK핀크스 포도갤러리에서 지난 19일부터 시작된 고남수 사진전이다.

고남수 작가는 제주 출신으로 경일대학교 사진영상학과와 동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방송영상콘텐츠학과를 공부했다. 국내는 물론 러시아, 벨기에, 네덜란드, 일본 등 해외에서 제주 오

름을 주제로 사진전을 가졌고 이성복 시인의 글이 더해진 '오름 오르다'도 묶여냈다. 제주 오름, 돌담, 숲 등을 찍으며 지속적으로 사진작업을 벌이고 있다.

'오름 오르다'란 이름을 단 이번 전시엔 흑과 백으로 채워지는 고남수 작가 특유의 오름 사진 15점이 펼쳐진다. 다른 색상은 배제된 채 흑백으로 표현된 오름은 곡선으로 빛은 능선,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초목, 시시각각 변화하는 날씨 등 그 대상에 집중하도록 이끈다.

고 작가는 “제주 사람에게 오름은 아름다운 풍경을 넘어서 제주의 아픈 역사를 간직한 곳이며 삶의 터전이자 영혼의 안식처가 되어왔다”며 “나에게 친숙한 오름 풍경을 통해 제주 사람으로서, 그리고 사진가로서의 내면 풍경을 드러내고자 했다”고 밝혔다. 전시는 9월 2일까지 계속된다. 문의 064)793-7021. 전선희기자

문화가 쏘다

박물관 밖 무료 인문학 여행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관장 노정래)은 2020년 첫 번째 교육프로그램으로 '박물관 밖 인문학 여행'을 무료로 펼친다.

이번 프로그램은 '거꾸로 보는 제주 역사'란 주제 아래 근현대를 시작으로 탐라국 시기까지 여섯 번에 걸쳐 제주 역사의 흔적을 찾아나선다. 일정은 ▷6월 27일=월아비리 마을과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김영란) ▷6월 27일=돌과 바람의 섬 제주의 항일운동 사적지 탐방(이정은) ▷7월 25일=제주 유배인과 함께 역사를 걷다(김진철) ▷8월 29일=제주목의 성립과 관련 사적(홍기표) ▷9월 26일=제주·몽골의 첫 만남과 그 유적(김일우) ▷10월 31일=탐라왕국 옛 성의 자취를 더듬다(강문규)로 구성됐다. 박물관 홈페이지 선착순 접수. 문의 710-7698.

우당도서관 대출 인기도서

제주시 우당도서관(관장 김철용)이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휴관기간 중 예약도서 대출서비스(북드라이브스루)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책은 김수현 작가의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로 나타났다.

우당도서관이 2월 14일부터 6월 17일까지 28회에 걸쳐 진행한 예약도서 대출서비스 기간에 8178명의 이용자가 1만8703권의 책을 대출했다. 성인 이용자들은 김수현 작가에 이어 현기영의 '순이 삼촌', 한강의 '소년이 온다', 손원평의 '아몬드', 팀 마살의 '지리의 힘' 순으로 많이 빌려왔다. 어린이는 이영경의 '아씨방 일곱동무', 마키터 신지의 '틀려도 괜찮아', '실민석의 한국사 대모험', 로버트 먼치의 '종이 봉지 공주', 진형민의 '소리질러, 운동장' 순으로 대출 빈도가 높았다.

오디오편 체험공간 조성

제주특별자치도와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후원하는 '2020년 오디오북 체험공간 운영기관'에 최종 선정됐다.

오디오편은 종이책이 아닌 녹음작업을 통해 음원으로 듣는 책을 말한다. 이동 중 읽기의 번거로움을 개선한 콘텐츠다. 서귀포시에 자리잡은 아시아CGI에니메이션센터 나동 에니카페 안에 조성될 예정인 '소리내음' 공간에는 오디오북 전용 태블릿 PC, 키오스크 단말기 등이 갖춰진다. 이를 통해 최신 오디오북 콘텐츠 소개와 홍보영상, 15분 내외의 샘플 오디오북 100여종을 제공하게 된다. 영상문화산업진흥원은 “아시아CGI에니메이션센터를 중심으로 출판문화 산업 활성화 체계를 구축하고 오디오북 사업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의 766-0706.

5G 관광체험 가이드 개발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2020 융복합 관광서비스 사업화 지원(R&D)' 지정연구개발 과제인 '5G 다차원실감형 관광체험 가이드 기술개발' 분야에 최종 선정됐다.

이 사업은 5G 기술력을 가진 (주)클릭트가 주관기관으로 참여하고 (주)포니게임즈, (주)한국아카이드, (주)엠엔프씨, (주)드론엔지니어, 홍익대학교 산학협력단,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이 공동연구기관으로 사업을 수행한다. 총 16억원이 투입돼 5G망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관광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기술을 2년에 걸쳐 개발하게 된다.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은 이 과제를 통해 제주대표 관광지를 발굴하고 스토리텔링을 통해 연구과제에 적용할 사용자별, 가이드별 스토리를 발굴할 예정이라고 했다.

찾아가는 예술활동증명 서비스 시행

제주문예재단 서비스 확대

내달엔 서귀포시 2회 방문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이 도내 예술인들의 '예술활동증명'과 창작준비금 신청 등을 돕는 행정지원서비스를 확대해 실시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 복지사업 신청에 필수적 절차로 '예술인복지법'에 근거해 직업 예술인임을 확인해주는 제도다. 예술활동증명을 발급받은 예술인의 경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지원하는 예술인 생활안정 자금(용자), 창작준비금 등이 대상이 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예술인경력정보시스

템(www.kawfartist.kr)에 가입 후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이나 예술활동수입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예술인은 사전 신청에 의해 대면행정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귀포시 지역의 예술인을 위한 찾아가는 행정지원서비스도 위한다. 7월 2일과 22일 서귀포시 문화도시센터와 협력해 진행한다.

제주문예재단은 보다 많은 예술가들이 예술인복지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술가끼리 서로 추천해주는 예술활동증명 추천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앞서 제주문예재단은 코로나19 사태 속에 예술활동증명 서비스를 확대해야 함에도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소극적 행보를 보여왔다. 문의 064)800-9138. 전선희기자

축
수상
국무총리 표창



양금희
통일교육위원
제주국제대 특임교수

국무총리 표창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양정규 외 가족일동

축
취임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장



양형석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한전 전력인회
회장 김병돈 외 회원일동

2020 향교·서원 문화재활용사업

제주향교·탐라선비의 꿈을 잇다. - 참가자모집

| | |
|--|---|
| <p>『탐라선비문화화당』</p> <p>한국의 전통문화, 제주의 생활문화 및 한자등 제주향교에서 만나는 특별한 문화강좌프로그램</p> <p>봄-여름 가을-겨울이 담긴 장단의 원리 - 起景結解 정월부터 설날까지의 열두달의 흐름과 우리네 삶을 담아낸 한국의 장단을 만나는 시간. 7월1일 ~ 9월2일 매주 수 오후3-5시(10강) (사)국악연희단하나아트 음악감독 고석철 선착순 15명 / 총 참가비 2만원</p> | <p>『명륜아카데미』</p> <p>공자의 일생과 행적에서 의미있는 사건을 뽑아 도해한 그림인 공자성격도를 통해 공자의 가르침과 혜안을 만나는 시간. 7월1일 ~ 9월16일 매주 수 저녁6시-8시(12강) 강사 제주유학파 유배문화 저자 이진영 선착순20명 / 무료강좌</p> |
| <p>민화채색 민화彩色</p> <p>한국화의 기초적인 재료와 용구 사용법을 습득하고 우리의 전통회화 중 민화를 통해 전통회화 속에 담긴 의미와 표현기법들을 알아본다. 7월3일 ~ 8월21일 매주 금 오후3-5시(8강) 한국화가 오기영 선착순 10명 / 총 참가비 2만원</p> | <p>『명상아카데미』</p> <p>선현들의 삶을 통해 명상을 만나고 몸과 마음의 여유를 찾는 시간으로 안내합니다. 7월2일 ~ 9월3일 매주 목 오후3-5시(10강) / 저녁7-9시 (총10강) 명상치유연구소 원장 이미연 선착순 15명 / 총 참가비2만원</p> |
| <p>제주의 고문서</p> <p>제주 전통사회와 선조들의 삶을 그대로 투영한 고문서를 통해 옛 제주지역의 사회생활을 구체적으로 탐구하고 이해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7월3일 ~ 8월21일 매주 금 저녁7-9시(8강)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 문창선 선착순20명 / 무료강좌</p> | <p>강의</p> <p>제주향교 명륜당 제주시 서문로 43 (용담1동)</p> <p>문의</p> <p>064)757-0976 064)742-0105</p> |

다례 茶禮

몸과 마음의 여유를 찾고 타인과의 소통을 돕는 한 잔의 차 행다법·상생다법·다화·다식 아름다운 찻자리의 모든 것을 만나는 시간.
7월6일 ~ 9월14일 매주 월 오후3-5시(10강)
제주지역사회교육협의회 강경순
선착순 15명 / 총 참가비 2만원

제주향교 전교 부성종

방역지침에 준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가자분들은 마스크를 꼭 지참해 주세요.